선명상인 간화선이 인류 구원할 답”



산중의 의정 스님과 도심 한가운데 각산 스님이 유래없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힘겨운 오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가지 않고 한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해외의 마스터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대단히 혼란스럽고 대중의 삶은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요? 대중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정 스님=오늘날, 인류에게 있어서 물질문명의 폐해가 많습니다. 아울러 이념에서 비롯된 폐해도 역시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1세기는 정신문화의 르네상스가 될 것이다”고 했습니다. 간화선이 그 르네상스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물질만능의 폐해에 대해 많은 생각이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신문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물질문명은 위험한 것이며, 물질로 채워지는 만족과 더불어 정신적 만족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힘겹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래 행복과 불행은 없습니다. 마음 안에는 행복 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쪼개 놓은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행복한 사람만 쳐다보면서 사니까 늘 불행한 것이죠. 마음이 짓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수행을 하면 그렇게 둘로 나뉜 것들이 하나가 됩니다. 행복에도 집착하지 않고 불행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보면 많은 망상들이 없어질 겁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인류의 삶이 점점 정신적으로 힘든 것은 물질에 천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에만 천착하면 인류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더듬어보면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이 조화를 이뤘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유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물질문명은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반면 정신문화는 이야기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물질과 정신의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인간성이 사라지고 사회는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 이기주의가 개인 이기주의에서 시작해서 사회이기주의, 국가이기주의로 확대되면서 인간의 삶은 정신적으로 점점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정신문화를 키우지 않으면 개인은 물론 인류 전체의 미래는 밝을 수 없습니다. 선문화를 통해서 정신문화를 향상시키는 것이야말로 평화롭고 행복한 인류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길입니다. 우리 선문화가 앞장 설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문화에 관심을 갖고, 선문화에 관심을 갖다보면 자연스럽게 물질문명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 수행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수행이 최고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행복의 첩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협회가 이끌어갈 것입니다.

각산 스님=천재지변에 가까운 이 힘든 시절에서 우리 모두는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는 외적(물질적)인 어려움과 내적(정신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외적인 어려움이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볼 때, 내적인 정신적 어려움은 대중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만족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마당이 선의 세계입니다. ‘선=간화선’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중적 용어로 ‘참선명상’ 입니다. 간화선 수행은 ‘확철대오’가 아니더라도 정혜쌍수를 쌓다보면 자신의 에고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괴로움을 ‘겪는 것’ 이 아니라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것’ 이죠. 할 수 없이 겪는 것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업의 모양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삶의 모양을 바꾸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오늘의 사태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일입니다. 그것을 괴롭게 ‘겪을 것’ 인지, 그 괴로움을 ‘받아들일 것’ 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따라 삶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쉬운 말로 ‘마음먹기 달린 것’ 이죠.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 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알아차림’ 을 본능으로 하는 선의 정신입니다. 힘든 것을 힘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처를 만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겨운 시절입니다. 다시 좋은 시절이 올 것을 믿으면서 오늘을 받아들이다보면 괴로움이 괴로움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번뇌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Q. 2018년 공사를 시작한 문경 세계명상마을이 2021년 10월 완공예정인데요,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완공 후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 스님=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모를 처음 계획의 반으로 줄였습니다. 예정됐던 정부지원금이 줄어든 관계로 규모를 줄여서 개원을 하고 후에 점차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수용 규모를 300명 규모에서 150명 규모로 축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선원(하 · 중선원), 웰컴센터(사무, 식당, 차체험실 등 부대시설), 선센터와 숙소 등이 주요 건물입니다. 숙소 증측과 상선원, 무문관 등은 점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꾸띠(개인 수행시설)도 지을 것이고, 방사는 1~2인실을 많이 지을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문경 세계명상마을은 간화선과 명상에 관심이 있는 대중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수행시설입니다. 기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중이 각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협회에서 양성된 중간지도자들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Q. 한국불교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좌들의 위상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국불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국불교와 간화선이 더욱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의정 스님=그래서 문경 세계명상마을도 짓는 것입니다. 이미 종교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색깔을 내세우기 보다는 대중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는 선명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불교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단 차원의 공감과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좌들의 위상과 역할이 예전만 못한 것은 주요 요직의 조건에서 ‘수행’ 의 의무가 점점 작아지는 등 제도적 구조와 종풍의 변화 등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행의 중요성이 작아짐으로 해서 수좌의 위상과 역할도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것이 외적인 요인이라면, 열악해진 수행풍토 등 내부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산 스님=템플스테이가 한류문화의 하나로 잡은 것처럼 간화선을 한류의 이름으로 알리는 노력도 한국불교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간화선 수행의 장점을 체험한 대중을 통해 한국불교의 중심인 간화선을 알리는 것입니다. 간화선의 세계화가 곧 한국불교의 세계화인 것이고, 그것이 한국불교의 중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대중이 원하는 것이 명상이고, 명상의 가장 깊은 뿌리가 간화선이라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Q. 출가자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의정 스님=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중들이 종교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출가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불교가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종교에서 멀어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선문화복지회에서 간화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곧 출시될 예정이고 연말에는 영어버전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선수행을 널리 알리는 것이 출가자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산 스님=남방 쪽 불교국가에서는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무료입니다. 만 명이 참여하면 천 명 이상이 출가를 합니다. 우리도 단기출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수가 많지도 않고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도 방향을 바꿔서 (단기)출가처를 늘리고 무료로 진행해야 합니다. 무료로 하게 되면 참가자가 늘어날 수 있고 출가의 확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기회의 장을 넓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출가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가 고행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것임을 체험하고, 불교를 통해 행복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출가의 확률은 늘어날 것이고 출가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Q.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절인데 선명상 수행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의정 스님=좌탈입망 등 역대 조사들의 자유자재한 죽음을 볼 때, 그들은 자신 있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자신 있게 죽음을 맞았다는 것은 자신 있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은 다음 생을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인 것이죠. 선 수행은 자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서 행복과 불행을 이야기했듯이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수행은 그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각산 스님=정법을 만나지 못한 대중은 당연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법을 만나고 선수행을 닦는다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에 죽음에 대한 설법은 많습니다. 불교를 만난 사람은 죽음을 맞아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수 정 사

회 주 백성 문인 대종사
주 지 귀일

사부대중일동



경북 의성군 금성면 수정사길 420번지
Tel 054)832-7913